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김 정 숙, 서 리 나†, 탁 정 미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강사동신대학교, 학생능력개발센터 상담원

The Impa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Jeong-Sook Kim, Lee-Na Seo †, Jung-Mi Tak

Dept. of Nursing, Dongshin Univ.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

Student Employment Promotion Center, Dongshin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380 students at 3 universities in Jeonnam province and Gwangju city, Ko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levels of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were over middle point(2.5point). The best of them was self-efficacy. Second, the lowest level of them by grade was commonly freshman female students.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y major except for soczzzzial support. Third, the effective sub-variables of social support which have influenced on career decision level were self-esteem support and evaluated support. Forth, the impactive sub-variables of self-efficacy which have influenced on career decision level showed general self-efficacy. Fifth, the significant sub-variables of social support which have influenced on self-efficacy were self-esteem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high levels of self esteem social support and general self-efficacy led students to improve in career decision level. Here showed that the effect by grade or group on study was more clear than that by major.

Key word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1. 서 론

현재 고학력 취업 문제와 함께 극심한 실업난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인적자원개발법>이 법률로

제정되면서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 되는 추세이다. 취업 및 실업 문제가 종국적으로 대학의 졸업유예현상으로 가시화되면서 대학은 진로 및 취업 향상 그리고 사회적인 인력개발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02년 자료를 사용하여 여성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를

† Corresponding author, Tel: (062)530-1320, E-mail: smungchi@hanmail.net

살펴보면 전문대졸까지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고졸 비율이 증가하지만 대졸이상의 경우 전문대졸 여성보다 고용률이 8%포인트가 적은 55.3% 수준이다. 또한 고용률 뿐만 아니라 유희화율도 함께 떨어지고 있어 대졸여성 인력의 유희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제적으로 대졸여성의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유희화율을 낮출 수 있는 인적자원 활용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황수경 2004a). 다행히도 2006년 8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2005년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11.3%의 증가율을 보여 최근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취업률은 전년도 대비 남성 취업자 증가율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 외에 당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대졸남성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졸여성의 실업률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청년여성의 실업의 원인도 해결해야만 한다는 이중의 난제를 지적하는 단서이다. 여성의 취업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지만 동일 학력의 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대졸이상의 여성 실업률은 2005년 상반기에 3.4%에서 2006년 상반기에는 3.7%로 높아져서(한국여성개발원 2006) 2006년 8월 현재 대졸여성의 실업률은 4.1%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국민일보 2006). 이에 대졸여성 취업률을 국제적인 수준까지 더욱 높이면서 동시에 고학력 여성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다양한 수준의 대책과 전략이 국가와 사회, 개인이 서로 연계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정책의 수준에서는 효과적인 여성인력개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학력에 맞는 일 역할의 수행하는데 제약이 되는 편견적 성역할 이데올로기 의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여대생의 경우 미래 직업과 관련한 진로 개발과 교육, 진로 의사결정 등과 같이 개인의 일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있어 주도성을 발휘하도록 기여하는 개인 내적이며 대인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정책의 수준의 경우 고학력 여성의 안정된 경제활동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여성인력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학력 여성을 위한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를 운영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통하여 진로지도와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진로 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운영 지원하였으며, 2006년부터 사업이 전국 12개 대학으로 확산되었다.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각 지역 특화 산업군의 취업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제공한 후 지역산업체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써 2003년도에 8개 대학에서 시작한 여 2006년 현재 전국 41개 대학이 참여하여 총 50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실제 취업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밖에 여학생들의 직업편중성을 완화하고 직업의식을 높이기 위한 『여성 유망직종발굴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2005년부터 관련 자료를 위민넷(www.women-net.net) 코너에 탑재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2006).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성역할 의식에 의한 성별 역할분담 구조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른 노동곡선은 20대 중후반과 30대 초반에 함몰되는 M자형 곡선 형태이다. 즉 많은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혹은 결혼 초기에 출산, 양육, 자녀 교육 등 가사부담으로 노동에서의 일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서의 일을 선택하게 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정 역할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비로소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M자형 노동 곡선은 80년 이후 선진국에서는 사라졌으며 OECD 국가 중 유일한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형태를 보인다(황수경 2004b). 그러므로 성별 분담과 노동 환경의 문제는 대졸 여성에게 학력의 수준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일의 선택과 앞으로의 삶에 제약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맞벌이 여성의 경우 생활 세계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함께 일과 가정 역할 간 갈등을 실제 경험한다. 또한 직업 세계에서 여성은 유리로 된 문과 벽, 천장과 같이 취업기회의 어려움과 여성 집중적인 업무 배치, 남성에게 비해 승진의 어려움 등 지속적으로 겪는다(국민일보 2003). 이런 문제들이 노동시장이나 일상생활에서 표출되면서 여대생들은 진로 및 취업에 막연한 불안감을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다. 또한 진로 선택 시기에 이르면 현실 상황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진로 결정에 있어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취업을 목표로 남학생과 경쟁하고 취업 여건이 취약한 현실을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능력의 한계와 함께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다. 성별 분담 의식이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노동환경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대졸 여성은 유용한 진로 탐색 정보를 개발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할 때 무엇보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자신감을 키우고 대인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효능감과 대인관계에 근거한 사회적 지지 수준은 여대생의 진로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이 진로 결정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학력 및 계열에 따라서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 진로결정 수준의 일반적 경향은 각각 어떠한가? 둘째, 학력 및 계열에 따라서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 진로결정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넷째, 자기 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다섯째,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다.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과 효과를 밝힌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선행연구 고찰

진로(career)란 개인이 일생에 걸쳐서 직업과 관련하여 취하는 일련의 행동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오은진, 신선미 2005). 대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전공 선택과 관련되고 나아가 직업을 정하고 개인의 미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진로 결정의 문제는 능력 발휘의 기회나 인간관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 생활양식 등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연과 최동선(2006)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재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정보센터와 학생생활상담소를 통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이들 기관의 전문성 미약과 함께 대학생 자신의 진로 미결정 수준이 매우 높고, 일체험 경험이 부족하며, 진로개발 효능감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대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진로 개발 능력을 주도적으로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 선행연구들(김보환 1997; 문미란 2002; 이선영 2004; 유지선 2004; Gordon 1981)은 진로결정 수준의 관련 변인으로 흥미와 가치, 의사결정유형, 자존감, 자기 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성별, 학년, 계열 등 다양한 요인들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Ferry 등(2000)은 진로선택 문제가 개인의 내적요인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혔다. 스티븐 코비(1994) 역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위하여 내면적으로 부터의 변화하여 외부로 향하는 접근법을 통하여 ‘개인적인 효과성’과 ‘대인간의 효과성’을 주장하였다. 진로 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한 개인의 진로 의사결정은 사회적 지지와 같은 대인관계적 요인과 함께 자기 효능감 등의 내적인 심리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일종의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사회적 지원망 체계로서 개인이 갖는 사회적 관계의 질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획득한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지지는 개인에게는 요구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자원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서리나 2006). Thoits(1982)는 사회적 지지를 애정, 인정, 소속 및 안정에 대한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즉 모든 사람은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가지며 이것은 주위로부터 제공된 사회적 지지를 통해 만족될 수 있다고 하며 사회적 지지의 관계적이고 지원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Wethington과 Kessler(1986)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직접적으로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경우보다 스트레스나 갈등을 주는 상황이나 사건들을 보다 잘 조정하도록 돕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지지가 갖는 인지적이고 심리적인 내적 장점과 특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개인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정도는 진로 개발과 관련되고, 진로에 대한 결정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나 일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Chope 2001). 류진혜과 김태성(1998)은 높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대학생은 낮은 학생들보다 진로와 취업에 대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 관련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심리 상태가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노미순(1999)은 청소년들의 경우 교사로부터 본인의 능력과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평가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진로 수준이 높고 주위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진로탐색과 선택과정에서 높은 진로 성숙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학업과정에서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되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선택이나 결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에 대해 Bandura(1977)는 초기 연구에서 특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 내지 신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는 개인의 자기 효능감은 인간발달의 모든 측면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 일을 계속할 것인지 등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조아미, 2000 재인용). 그러므로 자기 효능감은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행동 변화를 결정짓는 중재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Erdwins 등(2001)은 사회적 지지, 역할만족, 그리고 자기 효능감과 여성의 역할 긴장 간의 관계 연구를 통하여 자기 효능감이 여성의 진로와 가정의 갈등을 설명해주는 가장 큰 예측 변인이라고 밝혔다. 자기효능감이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이은경(2001)은 자기 효능감은 남성 보다는 여성의 경우 진로발달을 예측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정진선(2001)은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시 보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경향이며, 효능감이 낮을수록 보다 의존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자기 효능감 변수가 진로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관련되는 요인임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광주 및 전남 지역 여대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조사하고자 한 것이다. 여대생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지지와 함께 지역여성 스스로 진로에 관한 다양한 활동들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에 관한 자기 효능감은 진로 결정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해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여대생의 진로 결정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변인을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 수준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분석을 통해 상대적인 영향력이 밝혀진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의 하위 영향 변인들은 고학력 지역여성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취업 및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데 본 연구의 실질적인 의의를 갖는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및 조사대상자 특성

조사대상자는 광주와 전남 지역 소재의 3개 대학에 재학하는 1학년~4학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설문지로 2005년 3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일에 걸쳐 수집되었고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8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는 학년별로 1학년은 118명(31.1%), 2학년은 76명(20.0%), 3학년은 76명(20.0%), 4학년은 110명(28.9%)이며, 평균 연령은 21세이다. 계열별로 인문 및 사회계열은 210명(55.3%)이고 자연 및 공학계열은 170명(44.7%)으로 분류된다.

2. 조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다. 먼저 사회적 지지의 검사 도구는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 지지평가 척도(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를 근거로 하여 윤소연(1993)이 수정 보완한 4점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은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자존감 지지, 소속감 지지이며 각각 12문항으로 전체 48문항이다. 물질적 지지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재원을 얼마나 제공받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이다. 평가적 지지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같이 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해줄 사람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들이다. 소속감 지지는 타인과 함께 무엇인가를 할 만 한 사람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자존감 지지는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긍정적 평가를 해 줄만한 적절한 사람이 있는가를 묻는 문항들이다. 척도의 내적신뢰도는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자존감 지지, 소속감 지지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각각 .78, .84, .73, .76이며 전체 사회적 지지 척도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93이다.

자기 효능감은 Sherer 등(1982)이 제작한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 척도를 홍혜영(1995)이 번안하여 수정한 것을 채택하였다. 자기 효능감은 일반적 상황에서 자기 효능감을 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과 대인 관련 사회관계적 기술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으로 이루어진다. 총 23문항으로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6문항으로 신뢰도 Cronbach' α 는 각각 .86과 .68 수준이며, 전체 자기 효능감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87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자기 효능감은 4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도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진로결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Osipow 등(1980)이 개발한 '진로결정 수준 검사(Career Decision Scale)'를

기초로 고향자(1992)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 결정 수준은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역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진로결정 수준의 신뢰도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90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지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Win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백분율, 표준편차, 일원 분산분석, T-검정,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학년 및 계열에 따른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학력과 계열에 따라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 및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문항평 균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사회적 지지의 전체 문항평균은 2.97점으로 나타나 중간 점수(2.5점)에 비해 높다. 학년의 경우 4학년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은 2학년, 3학년의 순이며, 1학년의 수준이 가장 낮다. 계열별로 비교하면 인문·사회계열이 자연·공학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자기 효능감의 전체 문항평균은 3.30점으로써 중간점수(2.5점)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기 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은 학년에 따라 2학년이 가장 높지만 3학년과 4학년의 수준과 큰 차이는 아니다. 한편 1학년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계열에 따라 인문·사회계열이 자연·공학계열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다. 조사대상자의 진로 의사결정의 전체 문항평균은 2.76점으로써 중간점수(2.5점)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학년별 로 2학년의 진로결정 수준이 가장 높고, 1학년이 가장 낮다. 계열별로 인문·사회계열은 자연·공학계열보다 상대적으로 진로 의사결정의 수준이 다소 높은 편이다.

<표 1> 학년 및 계열에 따른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의 차이(N=380)

구 분		N	평균	D	문항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사회적 지 지	학년	1학년	118	139.23	a	2.90	12.05	5.99**	
		2학년	76	144.46	bc	3.01	14.57		
		3학년	76	141.18	ab	2.94	11.15		
		4학년	110	146.25	c	3.05	15.17		
	계열	인문·사회	210	144.00		3.00	14.53	2.07*	
		자연·공학	170	141.09		2.94	12.31		
	자 기 효 능 감	학년	1학년	118	72.05	a	3.13	10.07	6.00**
			2학년	76	78.47	b	3.41	12.27	
3학년			76	77.71	b	3.38	11.46		
4학년			110	76.53	b	3.33	13.55		
계열		인문·사회	210	76.38		3.32	12.38	1.10	
		자연·공학	170	75.00		3.26	11.76		
진 로 결 정 수 준		학년	1학년	118	50.40	a	2.65	9.89	4.72**
			2학년	76	55.78	b	2.94	9.94	
	3학년		76	52.38	a	2.76	8.90		
	4학년		110	52.29	a	2.75	9.94		
	계열	인문·사회	210	52.92		2.78	9.69	1.11	
		자연·공학	170	51.80		2.73	10.08		

*P<.05 **P<.01

D: Duncan's test

〈표 2〉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공차한계	VIF	R	R2	F
진로결정 수준	자존감 지지	.620	.225**	.82	1.22	.29	.08	17.25
	평가적 지지	.252	.111*	.82	1.22			

* $P < .05$, ** $P < .01$

2. 학년 및 계열에 따른 차이 분석

조사대상자의 학력 및 계열에 따라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각각의 관련성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Duncan의 사후검증을 통하여 집단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사회적 지지는 학년과 계열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각각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P < .01$ 수준에서 높은 유의한 집단 차이를 보였고, 계열에 따라서는 $P < .05$ 수준에서 다소 의미 있는 관련성이 나타났다. 학년별로 4학년이 사회적 지지 수준이 가장 높고, 2학년과 3학년, 1학년 순이다. 이를 집단 차이를 통해 살펴보면 4학년과 1학년 두 집단은 사회적 지지 수준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자연공학 계열에 비해 인문사회계열에 속한 조사대상자 집단인 경우 사회적 지지 수준과 어느 정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인문사회계열의 여대생 집단이 자연공학 계열 여대생보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이다.

자기 효능감은 학년에 따라 $P < .01$ 수준에서 높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학년에 따라 자기 효능감 수준은 2학년이 가장 높고, 다음은 3학년과 4학년 순이며, 1학년이 가장 낮다. 집단별로 유의 급간을 보면 2, 3, 4학년의 세 학년 간에 집단 차이가 없이 유사한 집단 특성을 보이는 반면 1학년 집단과는 두드러진 집단 차이를 보였다. 계열에 따라 자기 효능감 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대상자의 진로 의사결정 수준은 학년에 따라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학년의 진로결정 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은 3학년과 4학년 집단이지만 서로 비슷한 수준이며, 1학년 여대생의 경우 진로결정 수준이 가장 낮다. 집단별로 1학년과 3학년, 4학년이 유사한 집단 특성을 보이며, 2학년은 나머지 세 학년과 다른 집단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인문·사회계열 집단과 자

연·공학계열 집단은 각각 진로 의사결정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단계선택방식(stepwise)을 통하여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력이 있는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하위 변수들을 추정하였다.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의 하위 변수 중에서 자존감 지지와 평가적 지지는 진로결정 수준에 각각 $P < .01$ 과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대생의 자존감과 평가적 관련 사회적 지지 수준을 각각 높게 가질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정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두 변수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설명력은 약 8%이다. 공선성 통계량에서 자존감 지지와 평가적 지지 변수 모두 공차한계는 각각 .10보다 훨씬 크고, VIF는 10보다 훨씬 작으므로 자존감 지지와 평가적 지지 변수 간에는 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자기 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의 자기 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과적으로 밝힌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와 같다.

자기 효능감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 중에서 일반적 측면이 진로결정 수준과 $P < .01$ 에서 매우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사회적 효능감 보다는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라는 사실을 제안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대생이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 수준을 높이 인식할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정적으로 증진될 것을 가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설명력은 26% 수준이다.

〈표 3〉 자기 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공차한계	VIF	R	R2	F
진로결정수준	일반적 효능감	.52	.51**	1.00	1.00	.51	.26	129.9

** $P < .01$

〈표 4〉 사회적 지지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공차한계	VIF	R	R2	F
일반적 자기효능감	자존감 지지	.71	.26**	.74	1.36	.45	.20	47.26
	물질적 지지	.62	.25**	.74	1.36			
사회적 자기효능감	소속감 지지	.32	.34**	.68	1.46	.51	.26	67.35
	자존감 지지	.26	.24**	.68	1.46			
전체 자기효능감	자존감 지지	1.07	.18**	.74	1.36	.51	.25	65.30
	물질적 지지	.81	.16**	.74	1.36			

**P<.01

5.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하위 영역 및 전체 사회적 지지 수준은 모두 P<.01 수준에서 일반적 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 및 전체 자기 효능감 수준에 대해 매우 유의미한 인과적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 중에서 자존감 지지와 물질적 지지 수준에 따라 일반적 효능감은 각각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 자존감 및 물질적 지지 수준이 높은 조사대상자인 경우 일반적 자기 효능감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두 독립변수가 일반적 효능감에 미치는 설명력은 약 20%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 중에서 자존감 지지와 물질적 지지 수준이 일반적 효능감에 각각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 소속감 및 자존감 지지 수준이 높은 여대생일수록 사회적 자기 효능감 수준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변수가 사회적 효능감에 미치는 설명력은 약 26%를 차지한다. 한편 전체 자기 효능감 수준에 유의한 사회적 지지 변수는 자존감 지지와 물질적 지지 수준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자존감과 물질적 지지 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자기 효능감 수준도 정적으로 향상될 수 있음을 반영한다. 이에 대한 분산 설명력은 25%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 진로결정 수준에 일반적인 경향을 문항평균을 통해 각각 비교하면, 모두 중간 점수 2.5점 보다 높은 수준이다. 순서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가장 높고(평균 3.30점), 다음은 사회적 지지(평균 2.97점)

와 진로결정 수준(평균 2.7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좀 더 넓히고 진로 지도나 취업 의사결정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둘째, 세 차원 변수의 일반적인 경향을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세 차원 모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학년은 공통적으로 1학년 여대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이 높아진다고 해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 및 진로 결정 수준이 높게 나타나지는 아니었다. 반면 세 차원 모두 집단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 수준의 경우 1학년과 4학년이 집단 차가 현저하다. 자기 효능감은 1학년과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2,3,4학년 집단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수준은 1,3,4학년 집단과 2학년이 현저한 집단 차이를 보였다. 각각 분석해보면, 사회적 지지는 여대생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있어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고받거나, 함께 공동 경험과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사회관계적 체계로 1학년 보다는 4학년 여대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사회적 지지 수준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학년과 3학년은 뚜렷한 집단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일과 목표와 관련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사회관계적 상황에서 개인이 보유한 자신감과 대처 능력, 인내력 및 추진력 등에 반영하는 것이다. 자기 효능감은 여대생 개인이 획득한 지식과 정보, 다양한 경험들과 관련되는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변수임을 감안할 때 대학생활을 처음 접한 1학년의 경우 그 수준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고, 그 외 학년들은 년 수와 관계없이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2,3,4학년 모두에서 학년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진로결정 수준은 다른 학년에 비해 2학년 여대생이 가장 높았고 집단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것은

2학년은 실제로 진로결정의 중요한 시기임을 반영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셋째, 세 차원 변수의 일반적인 경향을 계열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단지 사회적 지지 변수로써 인문 및 사회계열 여대생이 자연 및 공학계열에 비해 사회적 지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변수 외에 자기 효능감 및 진로결정 수준은 유의하지는 않게 나타났지만 모두 자연·공학계열보다 인문·사회계열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여대생들의 계열에 따른 세 변수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계열보다는 학년에 따라 여대생은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고,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며, 올바른 진로 탐색 및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 진로결정 수준에서 모두 낮게 나타난 1학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단계적인 진로 지도 교육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넷째, 학년에 따라서 세 변수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2학년 여대생이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 진로결정 수준을 각각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남여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을 연구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결정에 확신을 갖고, 2학년이 가장 낮았다는 보고한 선행연구들(김봉환 1997; 고향자 1992)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성별에 따른 여학생의 차이이거나 사회적 환경 요구에 의존하여 자주 바뀌어 일관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않은 대학의 학사운영과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대학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2학년은 구체적인 장래의 진로를 결정짓는 학과를 결정하거나 세부 전공을 선택하고, 연계 전공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여대생의 자존감 지지 및 평가적 지지 수준이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밝혀졌다. 따라서 여대생의 자존감과 평가적 지지 수준을 높일수록 진로결정의 수준도 정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 진로 관련 태도나 성숙의 정도, 의사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노미순 1999; 이선영 2004)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의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 지지의 측면에서 여대생의 자신감을 북돋우고 긍정적인 자기 가치 평가

를 진작하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지자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안할 수 있다.

여섯째, 여대생의 자기 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로부터 하위 차원 중에서 일반적 효능감 수준이 진로결정 수준에 매우 유의한 변수임을 파악하였다. 즉 여대생의 경우 사회적인 효능감 보다는 일반적인 생활에서 자기 효능감 수준을 높일수록 진로결정의 수준도 향상될 것이다. 이 결과는 진로 분야에 자기 효능감 이론을 적용한 Betz Hackett(1981)의 견해와 일치하며, 자기 효능감이나 자기 확신과 자신감의 수준에 따라 진로 결정 및 선택 그리고 성취도가 향상됨을 보여 준 선행연구들(문미란 2002; 이은경 200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진로결정 수준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진로 관련 상담 과정에서 여대생의 자신의 목표나 계획 등을 분명하게 수립하거나 문제 대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자기 개발 및 관리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일곱번째,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 효능감은 자존감 지지와 물질적 지지 수준이, 사회적 효능감은 소속감 지지 및 자존감 지지 수준이, 전체 자기 효능감은 자존감 지지와 물질적 지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다. 평소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가정생활 그리고 기타 사회생활 영역에서 자존감을 획득하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은 여대생, 그리고 물질적 지원을 다각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관계를 보유한 여대생의 경우 정적으로 자기 효능감을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어느 수준 이상으로 자기 효능감을 갖춘 여대생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나아가 진로 의사결정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진로결정을 더욱 명확하고 분명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먼저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감 있게 미래의 생활을 선택하는데 기여하는 지지적인 기반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인간에게 가정은 가족 관계를 도모하고 자녀 사회화를 담당하는 곳으로 남녀가 사회적 관계를 최초로 학습하는 기초적인 생활근거지이다. 지지적인 가정생활 환경은 여대생이 학교 및 직업생활에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여 질적인 사회

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심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지적인 학교 환경은 최근 고학력 지역여성의 취업률 확대하는 여성인력개발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됨에 따라 진로 상담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정부와 지역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은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의 BK(Brain Korea)사업이나 청년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업사업, 차세대 여성 리더쉽 양성 교육 등과 같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인력양성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는 경향이다. 이것은 지역 여대생에게 사회 참여와 진로 개발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지적인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실례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 여대생과 같이 고학력 여성인력개발과 진로 체계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지적인 기반 환경을 굳건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성평등적인 관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 관련 상담 및 교육, 그리고 사회 참여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차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지금 우리는 다양성과 다문화가 인정되는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별에 의거한 경쟁과 차별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이다. 성의 제약 없이 지역여성이 능력 개발 및 진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양성평등적인 관점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반을 둔 여성 취업을 높이고 실업률 감소하는데 정적으로 기여하는 주요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적인 관점이 적용된 지지적인 기반 환경은 여성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높이는 정적으로 기여하여 질적인 사회적 관계망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켜 주도적인 생활환경의 범위를 넓혀 나감으로써 자기 성숙과 능력에 의거한 진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지역 여대생의 경우 지역 산업의 구조와 사회참여 환경에 따라 취업을 위한 대안이 상대적으로 적고 취업 여건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 산업체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지역 특성을 감안한 취업지원사업의 개발이 요구된다. 더불어 대학에서 학생생활상담소나 취업지원실을 통하여 진로 및 취업 상담, 리더쉽 개발, 자기성장 및 대인관계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의무화 될 필요가 있다.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상담과 자기 개발 프로그램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개인 의사결정, 특히 진로결정 능력을 개발하는데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교육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로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여성의 지속적인 인력

개발을 목적으로 할 때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 개발과 같은 관련된 실질적인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지역여성 교육에 관한 교육 및 상담 효과를 축적하고 자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지속적으로 지역여성 인력개발 효과를 추적하거나 그 방향을 설정하고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광주와 전남 지역의 여대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전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 여성의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회적 지지의 지지자와 지지구조 및 지지내용 등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여성의 사회적 관계의 질을 밝히고 취업과 실업의 경제적 환경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여성의 자아 효능감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개인 및 가정생활, 사회적 관계, 직업과 관련지어 세분화하거나 범주화하여 파악하여 그 구체적인 관련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성의 자아 효능감은 사회적 지지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진로결정 수준과 상대적인 영향 요인이 본 연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자아 효능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여성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남성과 다른 여성 고유의 특성들을 밝혀내는 작업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 및 논의를 통하여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한 진로 및 취업 관련 연구에는 취업률과 함께 실업의 원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인 관점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로 의사결정 능력 향상을 시켜 지속적인 취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의 자존감과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자기 효능감 수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V. 참고문헌

1. 고향자(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국민일보(2003). 여성들 취업은 '약진' 승진은 '고전'. 12월 24일

3. 국민일보(2006). **대졸여성취업자수 늘어나는 데 실업률 개선 기미 안보여**. 10월 4일
4.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노미순(199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류진혜, 김태성(1998).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취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6(1):211-232
7. 문미란(2002).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효능감 및 다중역할모형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서리나(2006). 한국 여성 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4):87-107
9. 스티븐 코비 저. 김경섭, 김원석 역(1994).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pp.59-62. 김영사. 서울
10. 여성가족부(2006). <http://www.mogef.go.kr/>
11. 오은진, 신선미(2005). **여학생 진로 다양화를 위한 진로-직업지도 가이드라인 개발**. p.18. 한국여성개발원 2005 연구보고서-4
12. 유지선(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 윤소연(1993). 자신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이선영(2004).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 이은경(2002).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및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임연, 최동선(2006). **진로교육의 과제: 통합적 파트너쉽 구축**. pp.6-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ssue paper 2006-1
18. 정진선(2001).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이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및 진로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 조아미(2000).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교육학 연구**: 38(4)
20. 한국여성개발원(2006). **2006년 상반기 여성고용 동향**. 통계분석 06-8
21. 황수경(2004a). **단시간근로와 여성인력 활용**. pp.90-93.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01
22. 황수경(2004b). **단시간근로와 여성인력 활용**. pp.101-103.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01
23. 홍혜영(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191-215
25. Betz, N., Hackett, G.(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men and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399-410
26. Chope, R.C.(2001). Influence of the Family in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Planning and Adult Development Journal* 17(2):54-64
27. Erdwins, Carol J, etc.(2001). The relationship of women's role strain to social support, rol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Family Relations* 50:230-238
28. Ferry, T.R., Fouad, N.A., Smith, P.L.(2000). The role of family context in a social cognitive model for career-related choice behavior: A math and scienc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7:348-364
29. Gordon, V.N.(1981). The undecided studen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59:433-439
30. Thoits, P.A.(1982).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oretical possibilities*. In I. G. Sarason & B. R. Sarason(Eds.),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pp.51-72, The Hague,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31. Wethington, E., Kessler, R.C.(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78-89